

The 1st Reading: Matthew 6:31~34 & Revelation 18:11~20

The 2nd Reading: Haggai 2:10~23

Sermon Title: Priority Matters.

Intro.

“We are the master and the architect of our life, and we design our future according to our desires” is the common spirit of this fallen world. This idea ultimately rejects God, and persuades people to believe that, a good blissful life is something we can achieve by our own efforts. Is this true? We will try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and this sermon will aim to discuss how we can live a blissful life.

1. Understanding the context

- a. Israel’s problem, where they were prioritizing their personal interest for a better future.
- b. The result: Lord’s discipline, and their expectation was never met.

2. Aspects of a blissful life.

- a. God is the author: A blissful life is not something we can achieve with our own efforts, for it is something that God can only provide. And He ultimately provides it through Christ.
- b. A blissful life is about living with the right priority of life.
- c. The Lord who provides.

3. Understanding our priority of life in light of the great day of judgement.

- a. This would further motivate us, to devote our life for the work of the Lord, for we know that our work in the Lord will not end in vain.

학개 2:10~23 <우선순위의 문제>

예전에 한 목사님의 설교를 YouTube를 통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캐나다에 머무시는 동안 겪었던 일을 예화로 말씀하셨는데. 책을 보러 도서관에 머물던 중에, 우연히 사탄교를 숭배하는 책을 보게 되었다 합니다. 과연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그 책을 열어 봤을 때, 그 책의 첫 구절을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네 삶의 주인은 너다.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문구는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정신을 잘 반영 합니다. 이 세상은 말하기를, '인생을 향해하는 이 배의 선장은 너 자신이다, 네 인생과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아가라! 그렇기에 신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중심적 삶을 살고, 미래를 인간의 욕망대로 세워나간다고 할 때, 과연 그는 좋은 인생, 만족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길 나를 우선시 하는 삶은, 우리의 인생을 더더욱 공허하며 허무하게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설교는 크게 3부분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신앙의 일보다는 자기 개인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삶의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해 말씀할 것이고. 두 번째로 참된 삶의 의미와 이런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 하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려 합니다.

1.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겪고 있는 죄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국의 포로에서 풀려나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파괴되었던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1:4절에서 보듯이, 이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뒷전에 두고, 자신들의 집을 짓는 것과 농사일에 매진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개인의 유익에 몰두 되어 하나님의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2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2~13절을 보면, 학개는 제사법에 빗대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를 지적 합니다.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요점은, 제사에 사용될 거룩한 고기를 어떤 부정한 사람이 만지게 되면, 그 고기가 부정해진다 할 때,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할지언정, 이런 거룩한 일 또한,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 더러워 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토록 부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성전 건축에 매진되기보단, 자신의 이득을 더 우선시함으로, 자기 집을 짓고, 농사일에 매진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런 삶의 좋지 않은 결과를 16절에서 또한 보게 됩니다..."*그때 너희는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갔으나 10석뿐이었으며 포도주 50통을 길으려고 포도즙 틀로 갔으나 20통뿐이었다.*" 그들이 개인의 유익을 우선시하여, 농사에 매진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던 수확량에 절반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매우 중요한 진리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복된 삶의 조성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타락한 세상은 말하기를, 내 삶의 주인은 내 자신이며, 복된 미래는 내가 개척 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민자로서 호주에서 살아갈 때, 많은 이민자 분들이 언어적인 한계로,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민자 분들은 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은,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해오시던 분들도,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출석을 포기하는 모습 등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더욱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뒷전으로 밀려 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는 마치,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여기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포기하여, 아무리 큰돈을 벌게 된다 한들,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 없는 인생이, 참되고 복된 인생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된 삶, 의미 있는 삶은 우리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참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풍성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17 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이 말씀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생명의 삶, 참된 의미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 스스로 참된 복된 삶을 얻을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 복된 인생의 모습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그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런 복된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구절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삶의 우선 순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세상의 일에 매료되어, 세상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기보다는, 주의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이에 헌신하는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5절과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두 삶의 모습에 대해 보게 됩니다. 우선 15절에서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의 삶과, 그리고 18절에서는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한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이전과 후의 삶은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17절을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을 시작하기 전, 이들이 주의 일의 헌신 되기 이전에 삶은 하나님의 징계로 빈곤 가운데 삶이었음을 보게 되고, 이와 반대로 18~19절은, 이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후, 주의 일에 헌신 되기 시작되었을 때, 풍요로운 삶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구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들이 누리는 풍요로운 삶이, 이들의 농작물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예로, 우리가 1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이 질문은, 농사를 위해 필요한 씨앗이 남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왜 씨앗이 남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이것이 주님의 축복으로 남지 않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것이 12월인 것을 감안 할 때, (10월에 아홉째 달이란 12월을 의미합니다) 12월은 농부들이 모든 씨앗 심는 일을 마치고, 겨울을 맞이하고, 농작물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달였습니다. 이들이 씨앗 심는 일을 12월 전에 마치기 위해서는 10~11월 사이에 충분한 비가 와서 땅이 폭신해져야 농부들은 씨앗을 심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9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씨앗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사 충분한 비를 주셨기에, 땅이 폭신해져 모든 씨앗을 심을 수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9절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이들이 이제는 주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 보듯이, 이들이 자신 개인의 일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미뤘을 때, 16절과 같이, 그들의 농사는 실패하는 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하고 그 일에 헌신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더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된 삶이란, 올바른 우선순위 가운데,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6:33 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가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런 약속이 오늘 학개 말씀을 통해서도 이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일에 헌신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농사가 풍년을 이루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언급되는 농작물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 농작물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인데, 여기서 언급된 모든 농작물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생활 필수 농작물들 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나무 열매를 통해 포도주를 얻었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통해 빵을 만들었고, 석류로는 염색제를, 감람나무로는 기름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축을 통해, 주의 일에 헌신 되어 질 때, 주님께서서는 모든 농사를 풍성케 하사, 그들의 의식주를 해결하여 주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 동기 부여.

이제 우리가 주의 일에 헌신 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20~23절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동기를 부여합니다.

20~23절을 요약하자면, 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는 다윗의 집에서 나온 지도자를 상징하는 인물로,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앞서 데이빗 목사님이 읽어주신 요한 계시록 18장 말씀과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의 좀 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되고,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물질적 부유함과 사치는 사라지게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물질적 영광과 화려함에 매료되어, 한평생을 돈, 집과 같은 물질을 얻기 위해 매진되어서 살아 갈 때, 이런 물질의 허무한 끝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허무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허무한 세상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히 없어 지지 않을 천국의 것을 위해 일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어디에 내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허무하게 사라져 버릴 세상 영광을 얻는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 나라 일에 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그래서 주안에서 우리의 일은 절대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더더욱 주의 일에 매진되어 헌신 되는 우리 캔터베리 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